LOCAL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장성형 복지 모델’로 보편적 복지 실현

군, 청소년 수당·어르신 바우처 등 맞춤형 정책 확대

김한종 군수 “세심·촘촘한 정책…희망·활기 이끌터”

장성군이 ‘장성형 복지 모델’ 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면 자풍마을을 찾은 김한종 군수.

민선 8기 ‘장성형 복지 모델’이 보편적 복지 실현으로 주목받고 있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가장 호응이 높은 시책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다. 군은 전남 최초로 학기당 최대 200만원, 총 8학기분의 대학 등록금 실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보호자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둔 30세 이하 대학 재학생이다.

장성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수당(꿈키움 바우처)’도 도입했다.

군은 9~13세 청소년에 7만원, 14~18세는 10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포인트는 서점, 문구점, 안경점, 예체능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입학 축하금도 지원한다.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새출발을 격려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준다.

‘어르신 복지’ 확대도 이목을 끈다.

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존 ‘효도권’ 지급액을 연간 1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 효도권 내 일정 금액을 식재료 구입에 쓸 수 있도록 ‘건강권’도 추가 도입했다. 효도권은 이·미용, 목욕탕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성 고유의 복지정책이다.

노인일자리사업 활동 시간도 30시간에서 39시간으로 늘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한다.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택시 요금 바우처 포인트’를 연간 14만 4000원씩 지원하는 ‘어르신 택시 바우처 사업’도 시행 중이다.

여가 공간인 경로당 지원도 눈에 띈다.

군은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여름에 총 62곳의 냉방기기를 교체했다. 등록 경로당 347곳은 물론 미등록 경로당 26곳에도 운영비, 부식비,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을 설치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김한종 군수는 “세심하고 촘촘한 ‘장성형 복지 모델’을 완성해 청소년이 꿈을 펼치는 희망찬 도시, 어르신이 활기찬 행복한 장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화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박차

관광택시 운영 등 신규시책 발굴

화순군은 최근 소회의실에서 내년도 군정을 이끌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2026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군정 방향에 맞춰 부서별로 발굴한 시책들을 함께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규 시책 97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주요 시책으로 관광 분야에서 화순 관광택시 운영, 파크골프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시험장 유치, 하니움 대관 행사 연계 화순군 관광자원 홍보,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 관람 활성화 등 화순의 주요 관광자원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객 유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제시됐다. 발굴된 시책은 소요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 활동 등을 통해 시책 추진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구복규 군수는 “지역의 미래 발전을 선도하고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영광군-농어촌공사

농어촌용수 수질보전 협약

영광군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어촌용수 수질보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농어촌용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통해 청정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세일 영광군수, 정경훈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저수지 유역 내 오염원 개선과 오염물질 유입 저감, 상류지역 오염원 감축, 유입하천 수질 개선,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인 파악·공법 개발·적용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또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업용수 수질 향상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무안,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대상’

기초단체 1위…최고 성과

일자리 부문 4년 연속 수상

무안군은 최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무안군은 최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일자리 공시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사업비 8500만원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전년도 일자리 정책 추진 실적을 일자리 목표 달성도,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의지, 지역 고용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축, 우수시책 발굴·추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군은 2022·2023년 최우수상,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수상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올렸다.

군은 ‘비상하는 일자리로 도약하는 무안군’ 비전 아래 계층·산업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전국 군단위 유일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일반랩 3개소 구축으로 제조업 생태계 조성,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등 고등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구도 증가세다. 올해 8월말 인구는 지난해 동월 대비 4.02% 증가한 9만5263명으로, 군은 인구정책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10만 인구 목표 조기달성과 함께 정주 여건 강화·도시재생사업 확대 등으로 생활 인구 증가-일자리 맞춤 정책 실현의 선순환을 가속화시킬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와 더불어 무안군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성명준 기자 tjdaudwns@

해남, ‘오픈AI’ 전남 투자 발표 ‘환영’

글로벌 AI 최적지 ‘솔라시도’…“행정력 집중”

해남군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글로벌 AI 선도기업인 ‘오픈AI’의 샘 알트만 대표의 접견에서 전남 서남권(SK 협력) AI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이 공식 발표된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오픈AI의 전남 투자 결정은 9월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체결된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투자 업무협약에 이은 성과다.

오픈AI는 한국의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서남권(전남), 동남권(포항)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을 각각 추진하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한국의 SK와 협력해 전남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최적지로 꼽히는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대한 발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해남 솔라시도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안정적인 용수, 광활한 부지, 인프라 접근성 등 데이터센터 핵심 요건을 완비한 즉시 착공 가능한 최적지로, 정부 AI와 RE100 국가산단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현할 ‘모든 것이 준비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오픈AI와 블랙록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전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남군이 선제적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담양, 수해 피해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담양군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1개월분을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담양군의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은 10월 부과분 요금에 적용되며, 2100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은 총 3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신안, 조직문화 개선·청렴 캠페인

신안군은 최근 ‘1004 DAY(천사의 날)’을 맞아 군청 로비에서 청렴 퍼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손으로 만드는 청렴한 신안’이라는 표어 아래, 직원 300여명이 참여해 청렴 퍼즐을 완성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이 붙인 300개의 퍼즐 조각은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돼, ‘우리 손으로 만드는 청렴한 신안’이라는 문구를 형상화했다.

행사는 신안군 내부 동호회인 ‘사나래(조직문화개선)’와 ‘청렴하마(청렴활동)’가 공동 주관하고, 신안군 공무원노동조합이 후원했다.

신안=성명준 기자 tjdaudwns@